

무리한 행정, 빗나간 행동

주차제도 홍보부족으로 학생불만 표면화

공대 오르막길 학생주차 허용 방침

수원캠퍼스의 새로운 주차 제도 시행에 따라 파생된 학생들의 거친 불만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학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개강과 함께 새로 실시한 주차제도 개선안 시행에 따라 학생들의 주차공간이 자연대 앞 종합주차장에 국한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한 학생이 공대 2층 교수휴게실 벽면에 '야 이놈들아 너네도 자대앞에 주차해봐라'라는 낙서를 남기면서 시작되었다. <사진참조>

수원캠퍼스는 지리적 여건상 교동이 불편하고 캠퍼스가 넓다는 이유로 매년 차량이 증가해 주차난은 해를 거듭할 수록 악화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실시한 이번 주차제도 개선안은 교직원차량을 제외한 학생차량은 자연대 앞 종합주차장에만 주차가 가능하게 했다.

학교측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문앞과 주차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10분 간격으로 배치·운행했으나 첫 시행에 따라

는 미흡한 준비와 홍보부족등으로 학생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대해 송영재(전산) 공과대학장은 "학내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무척 부끄럽다"며 "이러한

과격적인 방법을 선택해 개인의 불만을 표출한 그 학생이 과연 우리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자가용 등·하교를 하고 있는 이모(전자 3)군은 "주차

제도 변경 이후 불편하긴 했지만 사제시간의 기본적 예의를 무시한 이런 행동은 매우 지나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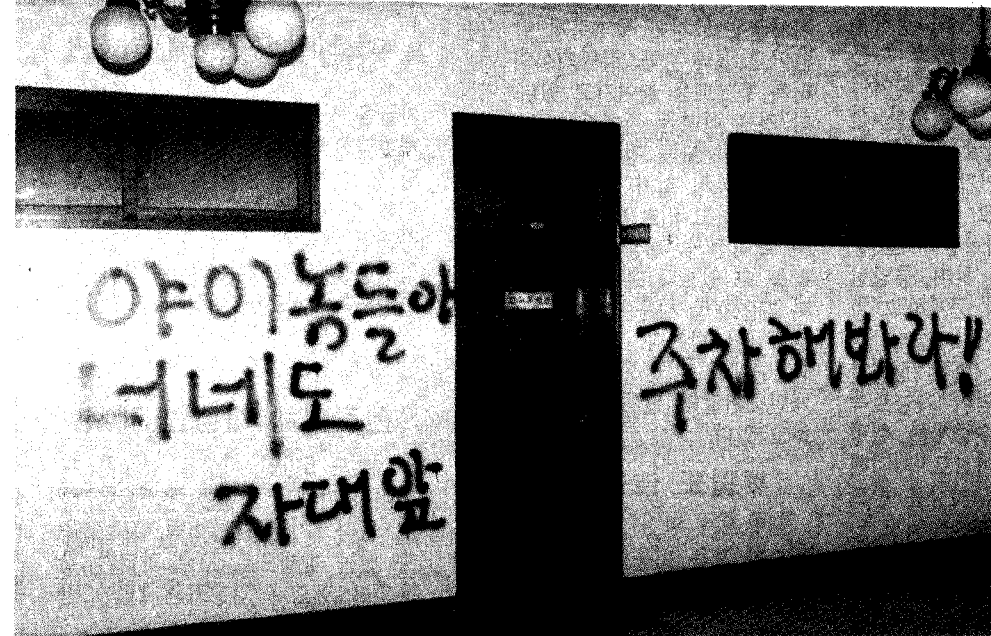
한편 공대 교무과에서는 오늘부터 3백대의 차량이 주차 가능한 공간을 확보, 사선 주차

라인을 그려 공과대 양 옆 오르막 길에 한해 학생차량의 주차를 가능하게끔 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지난 96년부터 유료주차제를 도입, 운영한 서울캠퍼스는 현재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시행 초기만만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차량의 출입수가 늘어나 학내 주차난은 별다른 개선된 바가 없으며 경희초등학교 등 부속기관들의 출입차량도 주차난에 한몫을 더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진원 기자)



▲지난 10일 오후 9시 이후에 공대 2층 교수휴게실 벽면에 그려진 낙서

동연 분과 연합 공연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동연)는 오늘 '동연분과 공연'을 선보인다.

정오부터 1시간 30분동안 학생회관 앞에서 갖는 이 공연에는 노래여울, NAKED, 달, 댕바람, 라미레즈, GLEE 등이 출연한다.

동아리 참여율이 저조한 요즘 신입생들의 동아리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기획하게 된 이번 공연에 대해 김봉석(경제3) 동연회장은 "학부제가 본격 도입된 이후 신입생들의 동아리 가입율이 확연히 줄어 아쉽다"며 이번 계기로 "많은 신입생들이 동아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주보 뉴스서비스

천안양: GO KHU 31

하이텍: GO KHU 10

인터넷:

<http://news.kyunghee.ac.kr>

23일 김형찬 문화제

안기부법 날치기 무효화와 민주수호 및 김형찬군 패유를 바라는 3.23문화제가 오는 23일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오후 5시에 개최된다.

'97역사의 물결을 민주주의 바다로'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김형찬 고문수사 안기부원 처벌과 안기부법 날치기 무효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주최한다.

이 행사는 앞줄이, 여는마당,

초청마당, 대중문화마당의 4개 마당으로 나뉘어 치러지며 앞줄이에서는 각 지역 부문별 장기자랑으로 보는 민주수호 앞마당이, 여는마당에서는 구성원 상 상영 민주수호시낭송, 민주수호 대학장기, 초청마당에서는 최도은, 화랑세, 조국과 청춘을 초대하여 공연할 예정이고 대중문화마당에서는 민족영화국대 '담판'과 함께하는 민주수호애니메이션의 행사가 펼쳐진다.

깨끗한 캠퍼스 운동

청결의식의 생활화, 선진 시민의식 고취

우리학교는 오늘부터 '깨끗한 캠퍼스 운동(Clean Campus Campaign)'을 전개한다.

학생들의 도덕적 책임감 부재에 대응하고 학교의 교육적 정책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운동은 청결의식을 생활속에 정착,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하자는 운동방향을 갖고있다.

운동의 세부실천계획으로는 △각 단대별로 '교육환경(강의실, 복도, 화장실, 편의시설, 주변도로)'을 월별로 평가, 전광판 게시 △예쁜 수거함을 제작

설치 △학생 청소 봉사 조직 결성 △경희 청결의 날 제정등이 있고 학생들 스스로 해야 할 7개의 방침(건물 내 금연, 담배꽂초 버리지 않기, 휴지 버리지 않기, 침 뱉지 않기, 주차질서 지키기, 지성인 품위 지키기)도 함께 들어있다.

이 운동을 기획한 조정원 총장은 "이 운동을 통해 학생 자치 활동으로 인한 교육 효과 증대와 창의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지원 요청을 적극 수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지장학생 모집

수원캠퍼스 학생복지위원회(학복위)에서는 오늘부터 24일까지 복지장학생을 모집한다.

모집자격은 생활보호대상자, 미과세자이며 접수는 학복위에 미과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장학생은 A,B,C 세등급으로 나뉘며 A급에서는 70만원, B급은 50만원, C급은 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등록기간 20일까지

앞서 가고 싶은 분만 보십시오!

대학주보 46기 수습기자 모집

서울 4월 1일·수원 4월 2일 마감



▲모집부서: 취재편집부, 사진부, 컷(만화), 광고기획부

▲지원지역: 우리학교 1학년생(97학번)

▲선발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

① 서울캠퍼스: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② 수원캠퍼스: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문의: 961-0095(서울), 0331-280-2056(수원)

대/학/주/보/사

교시탐

퇴보의 벽을 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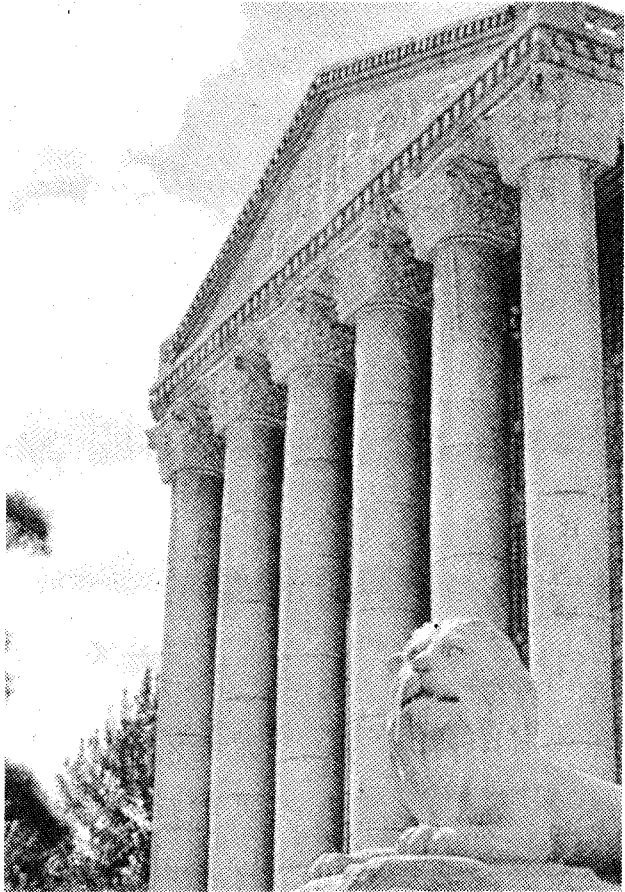
▼"학생들이 주차문제에서조차 교수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자유로운 속에 파묻혀 교수도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듯 합니다"라며 "요즘은 차라리 학원선생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죠"라고 쓴웃음 지으시는 교수님. "요즘 교수님들은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교직원전용주차장 문제만 해도 그래요."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 이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생기는 오해가 교수와 학생간에 벽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수원캠퍼스 관리과는 3월초 학내 주차 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침을 공표, 시행하였다. 학교환경의 개선과 효율적 주차관리를 위해 시행되었던 이 관리방침은 시행된지 한달도 채 안되어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에대해 학교측은 "주차문제에 있어서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 상태에서 어떠한 대책안도 소용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발생한 공과대학교수 휴게실 209호에 락카를 이용한 "야 이놈들아, 너네도 자대앞에 주차해봐라"라는 문구의 낙서사건은 주차문제가

이제는 단순히 차를 주차시키는 떠나 교수와 학생간의 감정의 벽을 형성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음을 극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지식의 전달, 인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학교육의 개혁바람이 불고있는 요즘 우리학교는 학부제, 복수전공 등의 교육개혁작업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함께 대학 발전에 앞장서야 할 교수와 학생간의 대립, 아니 단절의 벽은 대학교육의 발전은 커녕 퇴보만을 가져올 것이다. 교수와 학생간의 벽이 주차문제만으로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차문제가 이 절감 형성에 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학교측에서는 교수와 학생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있는 주차문제를 우선주차, 불법주차 강력단속등의 대책마련으로 교수와 학생간의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도 작은 실천, 예를들어 학내에서의 자가용 사용자체, 주차지정구역 내의 주차, 함께타기등으로 서로의 벽을 허무는데 실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용운 기자)

1999 경희창학 반세기
경희의 이름으로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 갑시다

경희가족찾기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자랑스런 경희가족 여러분!

본교는 개교50주년이 되는 1999년을 대학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고 이미 정년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실천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개방화·국제화·세계화 물결속에서 경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 경희가족의 참여와 공감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에서는 총동문회와 총학생회 공동으로 "경희가족찾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희인의 "어제와 오늘"을 파악하고 '동문 인명록'을 발간함으로써 동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새로운 21세기 경희발전"을 창출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 캠페인을 전개함에 있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게 되오니 전 경희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희가족찾기' 캠페인 사무국에서는 경희인의 근황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주변 동문의 근황을

①전화 또는 FAX

(전화: 961-0931/2, FAX: 961-0906)

②직접방문(본관1층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 경희가족찾기 캠페인 사무국)

③우편(☎130-050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가족찾기 캠페인 사무국 앞)등의 방법으로 연락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자원 협력자를 모집합니다.

학교와 동문, 학부문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에서는 유망자원봉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업무내용: 경희대 동문명단 및 주소 파악
2. 지원지역: 학부(2학년이상)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여학생 또는 졸업여성등으로 전화조사업무 유경험자 또는 자신이 있는 자
3. 모집인원: 40명내외(시간제근무자 약간정 포함)
4. 근무기간 및 시간: '97.4월부터 약 3-4개월간
· 전일제 월~금요일(09:30-19:30) 토요일(09:30-13:00)
· 시간제 월~금요일(09:30-21:00) 중 1일 5시간이상 선택
5. 제출서류: 지원서(소정양식),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지원서 및 면접카드를 본사업회와 각대학 교무과에 비치하고 있음
6. 제출기한 및 장소: '97.3.26 17:00까지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본관1층)
7. 면접일시 및 장소: '97.3.27 14:00-16:00(편리한 시간대 방문)
8. 대 우: 고정당(시간당 3,000원이상)의 우수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급액 추가지급
· 기타 문의 사항은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 경희가족찾기 캠페인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경희대학교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

(130-050)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 961-0931~2 FAX: 961-0906